ISSN 2092-8998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로 신뢰받는 sj 산림조합

산림

2022. 04 | vol. 675



사유림 경영의 답을 찾다2
산청군 선도산림경영단지

글+사진 이주원(화원지원부 사유림경영지원팀)

동의보감촌으로 유명한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동부는 합천군과 의령군에, 서부는 함양군과 하동군에, 남부는 진주시에, 북부는 거창군에 각각 인접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동서 38.8㎞, 남북 40.3㎞로서 주위는 대부분이 준험한 산령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청군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사유림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나무의 구성은 소나무와 낙엽송 등 침엽수림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소나무가 61%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산청군과 산청군산림조합(이하 산청조합)은 산림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모델 발굴을 위해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2016년 산림청이 공모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정수산과 구인산을 중심으로 1,587ha 단지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기반 산림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다.

산청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한 50년생 이상 나무가 82%를 차지하는 등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밀도도 11.8m/ha(전국 평균은 3.66m/ha)에 달해 기계화 등 사업추진 여건 또한 우수한 지역이다.

경영주체인 산청조합은 연간 2,000㎥ 생산이 가능한 제재시설과 15,000㎥ 생산이 가능한 톱밥공장, 연간 5,000㎥ 생산이 가능한 펠릿공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단지 내 생산목재의 안정적인 매각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임업기계화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기계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단지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운반비용 최소화로 산주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청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 등 임산물이 지역에 공급되고, 가공·유통·이용되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청조합은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임도밀도를 24m/ha로 끌어 올리며, 목재생산을 위해 소나무 불량림을 편백과 상수리로 갱신하고 노령화된 밤나무 재배단지는 특화임산물재배단지로 조성하여 가시없는 엄나무와 산마늘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와 토질척박지에는 아까시를 식재해 사면안정과 양봉사업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2026년까지 342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산청군과 산청조합은 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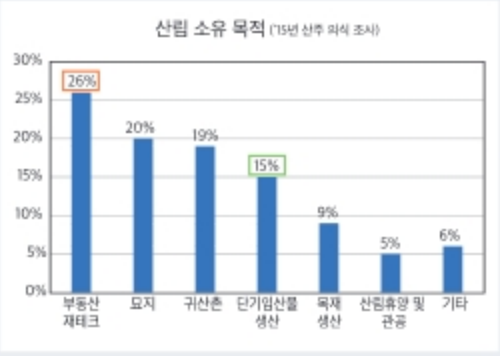
01 산청 선도산림경영단지 전경 02 산청조합 임업기계화 지원센터 03 산청조합 펠릿·톱밥공장

을 위해 경영주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산물수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엔청 협동조합'과 특용수·산채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산채재배 협동조합', 단지 내 밀원수를 활용해 양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숲에서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2. 목재 중심의 장벌기 경영구조를 개선하다.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산림경영은 주로 목재 중심의 장벌기 경영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심은 나무를 내 자손이 수확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산에서 돈이 나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 산림경영보다는 부동산 재테크 등의 수단으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많은 실정이다.





02



03


04


05

산청조합은 임업의 장기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소득 임산물을 도입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내 산림의 토질, 주변 시장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가시없는 음나무와 산마늘을 특화임산물로 선정하여 규모화된 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기반조성도 중요하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결국 소득과 직결된다. 따라서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없을 경우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특화임산물 조성 단계부터 산주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산림경영에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잘 몰랐던 산주와 선도산림경영단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경영주체를 육성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화임산물과 작업로 선정 등 기반조성 단계부터 비료주기, 풀 베기 및 울타리 설치 등 재배단지 운영에 산주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단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임산물의 생산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양질의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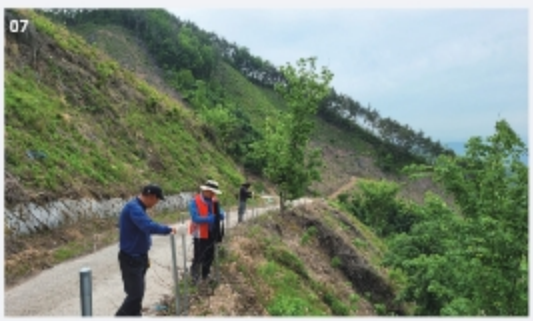
산림의 장벌기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시작했던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도입은 산주, 지역주민의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홍보 효과도 거두었다.

임산물의 유통망 확보로 재배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꾀해

품질이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특히, 판매처 확보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에 기대와 의욕을 갖고 산림경영에 첫발을 내디딘 경영주체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산청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산주, 지역주민, 산청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작년 지역 임산물을 대상으로 한 「소포장 산나물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임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 및 직거래 장터 등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여 수확 첫해인 작년 경남창원 컨벤션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서울본사 직거래장터 판매행사로 작지만 첫 소득(9백만 원)을 창출하였고, 지


06


07

역 대형마트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에 따라 증약초시장과 약초 축제, 산나물 체취행사 등을 통한 더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며,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산청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도 준비 중이다.
동의보감촌이 있는 산청지역의 특성상 산림을 활용한 약초 재배에 많은 산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나 경험 및 의지 부족 등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라는 성공 사례가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지역과 함께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앞서가다.

산청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산청읍 내수리)에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예술가 집단 공동체 마을인 '큰들 마당극 마을*'을 2019년에 조성하였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눈에 띄는 특색이 없고 뒷산인 밤나무 임지는 방치되어 활용도가 없었다. 또한 산을 개발해 조성한 마을이다 보니 산림재해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코로나 이전 한 해 평균 80~100회)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산청군과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주체인 산청조합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와 큰들 마당극 마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마을 주변 산림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경관도 조성하였다. 더불어 방치된 밤나무를 벌채한 수익을 마을 운영기금으로 환원하고, 밤나무 임지는 산림 전문가의 도움의 받아 단기소득 임산물인 음나무를 식재하여 마을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청군과 산청조합의 마당극 마을 지원으로 산책로 연계 공연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마을과 단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목재조형물(사슴, 로봇, 목제인형 등)을 설치하는 등 목제이용 홍보에도 함께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혹자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사업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은 산림사업을 기반으로 산림과 사람, 그리고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그 성공의 키는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산청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산청 큰들 마당극 마을은 1984년 창단한 마당극 전문예술단체 '큰들' 극단 단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큰들'은 똑같은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술공동체이자 37년의 역사를 가진 극단의 이름이다.

04, 05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엄나무)
06 산주들이 직접 설치한 작업로
07 직접 올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산주들
08 큰들 마당극 마을 전경
09 큰들 마당극 마을 뒷산 임산물 재배지와 조형물(사슴)


08


09